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농민 공익수당
16일까지 신청 마감

정읍시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는 현재까지 1만 1900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아직 접수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다. 작물 재배업자의 경우 도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양봉농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악성민원 대비
경찰서 등 합동 모의훈련

정읍시가 지난 8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경찰서·경비업체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갖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시민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민원실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과 직원의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의훈련은 실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됐다.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반복민원 대응지침에 의거해 △민원인의 폭언 중단 요청·경고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휴대용 보호장비를 활용한 현장 상황 촬영 등 빈틈없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9년 연속 선정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등 파격 지원책 시행

9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정읍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써왔으며,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먼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공장 건립 시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경우 기존 10억원 초과 투자금액의 5%였던 보조금 지원율을 8%로 1%p 상향 조정한다. 이는 지역 내 공사 물량 확보와

건설 경기 부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지역 기업의 정읍 이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 이주 지원도 강화한다. 공장 이전 시 4인 이상 가족 세대가 함께 정읍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산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에서 1%p를 추가 상향해, 1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8%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에서 레드바이오 산업까지 아우르는 집중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산업의 기틀을 더

욱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호남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을 활용해 물류 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물류 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제조업 투자에 준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물류 기업이 정읍에 거점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에 마련된 지역 산업 육성·경제 활성화 방안이 참체된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읍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난·일상 속 어려움 적극 대응'

부안군, 군민 심리회복 지원 조례 제정 공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군민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4월 25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지진과 올해 초 격파한 수산시장 화재사고, 위도 어선사고 등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우울, 불안, 고독 등 일상 속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는 부안군의 정신적 고통 완화와 빠른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견, △맞춤형 심리상담,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상담 지원, △정신건강 악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악화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며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전문인력 등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종 재난 발생 시에는 마음안심버스를 활용하여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재난 뿐 아니라 일상 속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자율방범대와 간담회... "노고에 감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9일 오전 의장실에서 부안군 자율방범대(연합대장 김안석)와 여성자율방범대(대장 김은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를 위한 순찰활동과 행사지원 등에 헌신하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박병래 의장은 "자율방범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우리 지역의 숨은 영웅들이



라며,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이 부안군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역사와 문화를 잇다' ... 제5회 무장음성 축제 열려

고창군, 새롭게 선보인 체험형 프로그램 '큰 호응'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창군 무장음성에서 '제5회 무장음성축제'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올해 축제는 새롭게 선보인 체험형 프로그램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역사 골든벨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해 무장음성과 고창군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함께 열리는 무장음성 그림대회에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관광객의 시선으로 담아낸 무장음성의 풍경을

그림으로 선보였다.

동학과 전통준 장군 녹두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축제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큰 주목을 받았다. 녹두떡 나눔, 전통준 장군의 밀서를 찾아라! 압호 해독 미션, 녹두꽃 클레이비누 만들기, 비경진천회 입욕제 만들기, 그 외에도 무장음성 포토스와 SNS이벤트, 꽃화분 나눔 이벤트 등이 준비되어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밖에도 군기교에서 발견된 비격진

천뢰 모형 전시, 무장음성의 과거를 담은 사진전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마련돼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무장음성(사적 346호)은 호남방어 요충지로 왜적 침입을 막고자 관과 민이 호국정신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축조한 음성이다. 동학동민혁명군이 무장기포지에서 포고문을 선포하고 봉기한 후 최초로 무혈입성한 역사적인 현장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역사를 친근하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5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호평'

고창군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관내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중이다. 5월 현재까지 66ha(94농가) 규모의 파쇄 작업을 진행했다.

파쇄지원단은 파쇄인력 6명과 파쇄기 2대로 구성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 고령자·여성 농업인·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논·밭두렁에서 고춧대·깻대·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신청



한 농가에 나가 파쇄기를 사용해 무료로 분쇄해 주는 사업이다. 자연순환 문화를 정착하고 불철 산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미세먼지 발생도 낮춘다. 특히 파쇄 작업을 통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은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에 총 23대의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 단위 공동 파쇄작업의 경우 무료로 임대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산불조심기간과 연계해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열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부산물 처리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원 순환과 깨끗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축산농가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

정읍시가 계속되는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24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달 사료구매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 가능 금액, 기존 대출금액, 유무, 각종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후 융자 추천이 어려운 일부 농가를 제외한 총 214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247억원에 대한 배정을 완료했다.

이번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에 연 1.8%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 추천 통보서'와 상세내역을 발급받은 후, 대출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오는 6월 12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시는 기간 내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2월까지 사료구매 정책자금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2차 배정이 예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료구매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가들이 안정적이고 소득 있는 축산농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